

개인정보보호

LG생활건강은 전사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정보유출 방지 및 법규준수의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각 법인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범위의 확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범위가 본사를 포함하여 직영매장, 위탁업체, 가맹점 및 대리점 등으로 광범위합니다. 기존에는 본사에 집중하여 법규 준수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 본사 외 영업 현장 및 위탁업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책임 있는 개인정보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내부 유출, 해킹 및 악성코드 예방을 위해 보안 솔루션 3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영업 현장에 대해 연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점검 항목 66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생명주기(수집부터 파기까지)에 대한 관리적 측면의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전체 판촉업체 7개사 및 영업 현장(3,500여 개) 중 48개에 대한 샘플링 점검을 실시하여 5개 핵심 프로세스(고객 리스트 관리 - PC보안 설정 관리 - 민감한 정보 수집·이용 관리 - 마일리지 부당적립 관리 - 개인정보 필요서류 관리)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2016년에는 영업 현장에서의 법규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2015년 8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유효기간제에 의거하여 1년 동안 구매이력 및 사이트 접속 이력 등이 없는 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2.5억 원을 투자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58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

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운영DB에서 삭제 후 별도 DB에 분리보관하였습니다. 분리보관된 고객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에 활용되지 않으며, 접근권한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안점수 제도

임직원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 보안 포털을 통한 개인별 및 부서별 보안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부터 파일럿 시행하였으며 5월 부터는 각 부문장의 정도경영 평가지수에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임직원 스스로 PC보안 설정 및 PC 내 개인정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점수를 제공합니다. 또한, PC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업무상 필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여 해킹 및 악성코드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방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안점검을 통해 임직원의 보안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2015년 1월에 71점이었던 전사 보안점수가 2015년 12월에는 98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

